



⑦ 연합뉴스 │ < ▷ 대통령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

Q



뉴스홈 | 최신기사

이승엽 "위협구 이겨낼 것..홈런 노리겠다"

송고시간 | 2008-11-02 22:58











장현구 기자



이승엽(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일본프로야구 최정상을 가리는 일본시리즈 1,2차전에서 안타를 때리지 못한 이승엽 (32.요미우리 자이언츠)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상대 투수를 대비하겠다"며 느긋한 모습을 보였다.

이승엽은 2일 도쿄돔에서 열린 세이부 라이온스와 일본시리즈 2차전에서 주포 알렉스 라미레스의 끝내기 홈런으로 팀 이 3-2로 이겨 시리즈 전적 1승1패로 균형을 맞춘 장면을 지켜본 뒤 "일단 팀이 이겨 기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세이부 선발 투수 호아시 가즈유키로부터 두 차례나 위협구를 맞을 뻔했고 상대의 철저한 피해가기로 볼넷 2개, 삼 진 2개를 기록하는 데 그친 이승엽은 "위협구는 내가 이겨내야 한다. 상대 투수들에게 밀리면 안 된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에 원정 3-5차전에서는 힘을 더 내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어 세이부가 3차전 선발투수로 이승엽의 '천적' 노릇을 했던 좌투수 이시이 가즈히사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오 늘처럼 똑같이 몸쪽 위협구도 올 것이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유인구도 많이 던질 것이다.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준 비하겠다"고 덧붙였다.

1,2차전에서 모두 홈런으로 승패가 갈린 것을 염두에 둔 듯 이승 엽 역시 홈런에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승엽은 "단기전에서는 양팀에서 모두 좋은 투수가 나오기 마 련이다. 안타 2, 3개를 때리는 것도 중요하나 결정적인 순간 실투 를 놓치지 않고 홈런을 쏘아 올리는 게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실투를 놓치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이승엽은 두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에 볼넷 3개를 얻고 삼진 4 개를 당했다. 안타가 없지만 '언제나 그렇듯' 승부의 흐름이 바뀌 는 순간 홈런포로 이름값을 해내겠다는 자세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이승엽은 퍼시픽리그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뛰던 2004-2005년 세이부의 홈구장 세이부 돔을 자주 경험했다. 그는 "돔 구장이라고 하나 지붕만 덮었을 뿐 일반 구장과 똑같다. 추위가 예상되고 이는 세이부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중심에만 맞으면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이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any9900@yna.co.kr



<프로야구> SK, 감독 재계약부터 마무리 방침

<프로야구> MVP.신인왕 영광의 주인공은(종합)

이승엽, 무안타 1득점..요미우리, 일본시리즈 2차전 승리

이승엽, 위협구에 타격 밸런스 '흔들'

이승엽 "몸쪽 공은 버리고 바깥쪽만 노린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1/02 22:58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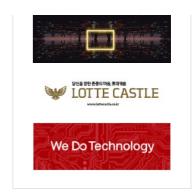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3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 65 안 맞아"(종합)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0 힐 예정"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앱
 모바일앱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